

제20회 인촌상 공공봉사부문 수상자, 김종태 평화의 마을 원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파자

기사 : 최정관 객원기자

사진 : 박숙미 (socialworker@welfare.net)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는 제20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지난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본지는 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한 대전 평화의 마을에서 김종태 원장을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원로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현 사회복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종태 원장은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사회사업과를 다니다 1957년 고 함석헌 옹이 운영하는 씨알농장에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

했다. 그는 1967년 홀트아동복지회 일산복지타운 원장을 지내다 1987년부터 아동생활시설인 대전 평화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 과정을 공부하기도 한 김종태 원장은 40년 동안 봉사활동만을 하며 생활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전국으로 전파한 공을 인정받아 인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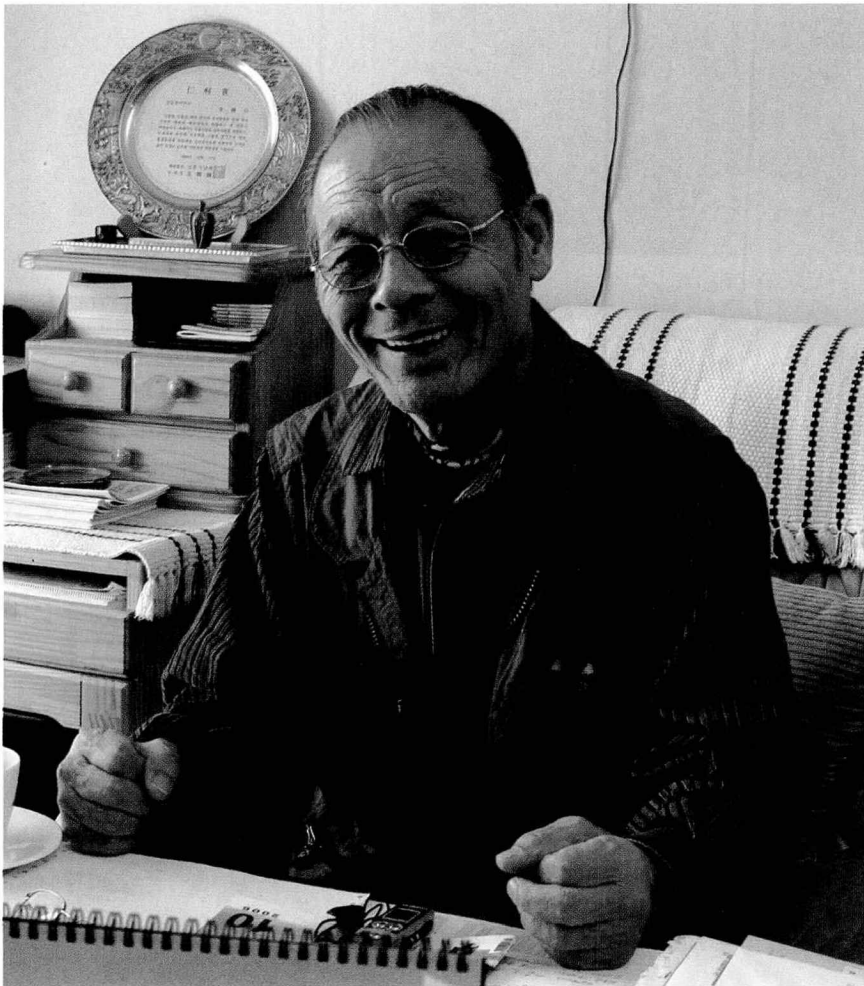
먼저, 인촌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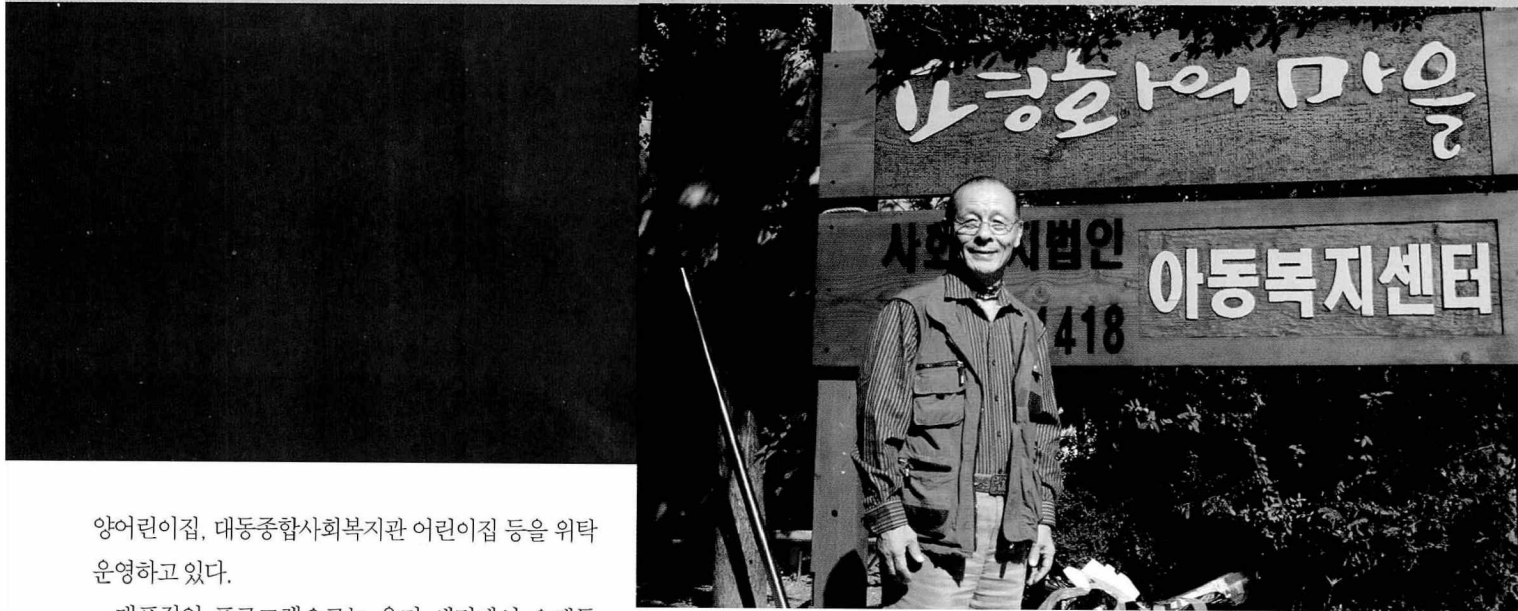
지명도가 높은 인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오늘과 같은 영광은 열정과 비전을 가진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우리를 믿고 도와준 많은 후원자들과 관계기관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전임 수상자들의 명단을 보니 상당한 부담감과 나의 미흡한 점이 중압감을 더한다. 칠십 줄에 새로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찌보면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남은 여생을 사회사업계를 위해, 약자들을 위해 더욱 치중할 것이다.

평화의 마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하는 시설인 대전 애육원을 시작으로 오늘의 평화의 마을로 성장하였다. 평화의 마을은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전, 대전애육원) 외에도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 대전홈리스지원센터(drop-in-center)와 더불어 가





양어린이집,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조국 기행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명승지를 일주하며 직원들과 동거동락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연 1회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찾아서 남해안을 순회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적응 프로그램, 소록도 봉사활동,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평을 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 같다.

원로 사회복지사로서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을 평가하신다면?

지금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좋은 기관에서 일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기관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낙후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설이나 기관에 가서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투신한다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

자기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정으로 '이 기관을 살려보겠다' 라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자기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각 지역마다 복지관은 물론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단체들이 사회복지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교환의 부족인 것 같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각각의 기관차원에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각

자의 역할을 정하고 분배하여 나름의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협력과 정보 공유의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위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한 곳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어떤 목표를 뚜렷이 갖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경제력은 쌓일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제적 여건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거기에 연연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를 당부한다.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외부 자본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제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무슨 사명감과 무슨 목표가 필요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라면 다른 직종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어려운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들을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려면, 정말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간다는 일념에서 충실하게 일해 나가길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당부한다. 